



### 1 Turnaround people and Turnaround place

✎ 하태선 교수 (지도교수)

아신대학교 해외봉사단이 '캠프'를 방문하게 된 것은 2017년 여름방학 봉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2018년 겨울방학, 2019년 겨울방학까지 세 번에 걸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2023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12명의 해외봉사단이 구성되어 '캠프'에 방문하게 되었다.

'캠프'를 계속해서 방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캠프'가 지향하는 방향과 진심이 담긴 현장 때문이었다. 현지인들의 욕구에 맞춰 그들이 주도하여 빈곤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협력하는 '캠프'의 정신은 사회복지실천에서 말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주의, 당사자주의라는 가치가 반영된 것이었다. '캠프'는 현지인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빈곤에서 벗어나는 turnaround people을 만들었으며, 타워빌 현장을 이양하는 과정을 보면서 외지인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turnaround place를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년 학생들을 모집하여 봉사단을 꾸리고 해외로 인솔하여 나간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위험을 감수한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해외 현장에 대한 눈을 뜨고, '캠프'와 같은 모범적인 현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다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현장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스스로 느끼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더욱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2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얻게 한 해외 봉사활동

✎ 이성재 (상담복지학부 1학년)

도착 첫날에는 딸락에 있는 캠프 지속가능발전 센터를 방문해 강의를 들은 후 농업 관련 봉사 활동으로 태양열을 이용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패널을 설치하고, 옥수수 농장의 제반 시설보수와 더불어 농작물에 급수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소수민족(아이파) 마을로 이동해 마뭇 주민들을 도와 버섯 생산시설 보수 및 지원 활동을 하였다. 셋째 날 마을 유치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략 50여 명 정도 참석 예상 이었는데, 실제 2배인 100여 명이 참석해서 유치원은 포화상태였다. 혹시나 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유치원 교사와 진행팀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친해지고 사랑을 나누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6박 7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이었지만 대학에 들어와 갖게 된 첫 해외 봉사 활동은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며 좁은 안목과 식견에 갇혀 있던 내게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얻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와 연관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에 대해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적 지식을 구체적인 실천적 활동을 통해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라고 고백한다.



### 3 하루빨리 현장에 와봐야겠다는 마음

✎ 이하은 (국제개발협력학부 2학년)

캠프와 함께한 이번 사역과 경험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고, 오 길 잘했다는 생각이다. 캠프라는 NGO는 필리핀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이 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과 사역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농업을 비롯해 교육과 보건, 환경, 에너지,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애쓰는 캠프 관계자들과 봉사단원을 보고 이들과 소통하며 참 귀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얻기도 했다.

가장 큰 깨달음은 '현장에 하루빨리 와봐야겠다'는 마음이다. "해봤어?"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남는 건 현장 경험이다. 봉사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 나와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배우고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커졌고 더욱 뜨거워졌다. 나의 꿈과 비전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 나가야 할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 정말 소중하고 유익했다.